

한국사에서 본 조선통신사

岩方久彦(부천대)

1. 서론

조선시대 교린관계에서 이루어진 통신사 또는 조선통신사는 韓日·日韓관계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¹⁾ 특히 일한관계사의 경우는 더욱 더 그렇다. 그것은 1970년대부터 재일한국인 연구자들이 식민사관으로 통신사가 조공사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통신사를 善隣友好의 象徴으로 평가하는 朝鮮通信使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에서는 에도시대(江戶時代)를 鎖國時代로 보고 대외관계가 없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조선통신사의 재발견으로 조선과 평화로운 시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일반대중까지 인식하게 만들었다.²⁾

그러나 일본에서 시작한 조선통신사연구에는 한국사에서 볼 때 논의가 필요한 쟁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 중 하나가 명칭문제이다. 조공은 朝鮮通信使라는 명칭이 학술용어로서는 부적절하며 通信使를 사용해야한다고 지적 했다.³⁾ 또 미노와 요시쥬구(箕輪吉次)는 대마도중가문서를 근거로 信使를 주장했다.⁴⁾ 그러나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일부 연구자들이 조선통신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고치기가 쉽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아직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본고의 취지에 맞게 일본 측 연구 성과는 조선통신사, 한국 측 연구 성과는 통신사로 구별하며 기술하도록 한다.

한편 명칭문제 못지않게 조선통신사가 선린우호의 상징이었다는 善隣友好論을 문제시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에서는 손승철이 ‘明清 교체 이후 ‘朝鮮中華主義’와 ‘日本型華夷秩序’이라는 자민족 중심의 모순에 의해 대립과 갈등이 연속이었다’고 하면서 선린우호로 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⁵⁾ 일본에서는 고지마 야수노리(小島康敬)가 ‘막부는 조선통신사를 마치 조공사처럼 연출했고, 조선도 일본의 再侵을 경계하

1) 원래 交隣 또는 交隣關係는 원래 중국에서 책봉을 받은 나라가 대등한 입장에서(敵體關係) 사이 좋게 지내려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방문이 필요하게 되고 報聘使, 回禮使 등의 명칭으로 양국의 교린관계가 시작했다. 조선이 파견한 사절단의 명칭이 통신사로 이름이 바뀐 것은 1424년부터이다. 그때부터 3번의 回答兼 刷還使를 제외하고 1811년까지 통신사는 일본을 방문했다.

2) 장순순, 『朝鮮時代 通信使研究의 現況과 課題』,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편 『통신사·왜관과 한일관계』, 景仁文化社, 2005, 40쪽.

한편 仲尾宏은 재일한국인 연구자들은 일본에서 자라는 2세들에게 한민족으로서의 긍지를 갖게 하고, 또 일적 일본과 한국 간에는 오랫동안 우호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과, 당시 일본인이 전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조선통신사 이행이나 조선왕조의 문화와 문물에 존경의 눈길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 했다고 지적했다. (仲尾宏저, 유종현 옮김, 『조선통신사 이야기』, 한울, 2007, 6쪽)

3) 조광, 『통신사에 관한 한국학계의 연구 성과와 쟁점사항』, 조규익·정영문 엮음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 8, 學古房, 2008, 304쪽~305쪽.

4) 箕輪吉次, 『朝鮮通信使という名稱について—天和2年(1682)の資料を中心に—』, 조규익·정영문 엮음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 8, 學古房, 2008, 29쪽.

5) 손승철, 『朝鮮時代韓日關係史研究』, 지성의 샘, 1994, 261쪽.

는 敵情視察의 의미가 있었다’고 하면서 선린우호의 뒤에는 여러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⁶⁾ 조선전기에 대해서는 김광철의 비판이 있다. 그는 이 시기가 神功皇后의 朝鮮侵略談이 민중단계까지 수용된 시기였기 때문에 선린우호의 시대로 규정하기 힘들다고 했다. ⁷⁾ 그런데 이와 같은 비판은 한 마디로 선린우호만으로 보기 힘든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으니, 그렇게 보지말자는 식의 해석이다. 그러나 외교관계에서 충돌이나 갈등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그것을 비판의 기준으로 삼으면 곤란하다.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통해 판단해야할 것이다.

본고는 한국사 입장에서 조선통신사 특히 선린우호론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이것을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 당시 통신사 교류가 선린우호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역사용어는 가능한 당대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善隣과 交隣을 대비시켜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선린우호를 한국이나 일본 한 측의 정책으로만 보지 말고 어디까지나 양국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한일·일한관계사에서 조선의 외교정책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과거에 있었는가. 셋째 시기구분 문제이다. 통신사의 시기구분은 한국과 일본에서 이루어졌지만, 과연 타당한지 다시 검토하고 싶다.

물론 필자도 조선통신사를 조공사로 규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선린우호론의 문제점을 들어내고 한국사 입장에서 본 통신사상을 구성하자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만이 조선이 보낸 통신사의 위상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 선린우호론과 조선통신사

2장에서는 일본 측 연구 성과(조선통신사)를 회고하고자 한다. 조선통신사란 조선이 일본 측 요청에 따라 보낸 350명~500명으로 구성된 사신단인데, 일본민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 결과 일본 가부키(歌舞伎)에 도입되기도 하며, 가라코춤(唐子踊)이나 ‘조선야마’와 같은 서민이 즐기는 문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⁸⁾ 신기수, 이진희, 강재연 등 재일한국인 연구자들의 업적은 이와 같은 일본의 여러 지역에서 조선통신사의 발자취를 찾아내 왜곡된 역사를 원래 모습으로 복원한 것이라 생각한다.

6) 小島康敬, 『江戶時代における朝鮮像の推移—知識人の場合—』, 『鏡の中の日本と韓国』, ベリカン社, 2000, 27쪽.

7) 金光哲, 『中近世における朝鮮觀の創出』, 校倉書房, 1998, 198쪽.

8) 『唐子踊』은 일본 오카야마(岡山)현 우시마도(牛窓)에 전해 온 춤이다. 그 지역 가을축제 때, 6~7세 어린이 2명이 독특한 의상을 입고 춤추는 것으로, 북과 피리의 반주로 노래를 부른다. 이것은 통신사에 수행한 10여명의 소동이 전해준 것이라고 한다. 또 ‘조선야마’는 기후(岐阜)현 오가키(大垣)市에서 1648년부터 神社 축제에 등장했다고 한다. ‘조선야마’는 마을의 젊은이가 금란의 아름다운 조선옷을 입고, 선두에는 ‘清道’라고 쓴 깃발을 두 개, 동등. 마치 통신사를 제현한 것 같은 行列이다. (이진희, 『朝鮮朝와 徳川幕府』, 『韓國國 日本文化』, 乙酉文化社, 1982, 193~195쪽)

가라코춤(唐子踊)의 경우 연구자들이 조선통신사와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기 전에는 神功皇后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이 믿고 있었다고 한다. 신공황후는 삼한정벌을 주도한 인물로 일본 지식인들이 『日本書紀』에 나오는 이 기사를 근거로 조선에 대한 우월성을 강조하거나 조선통신사를 조공사로 봤다고 한다.⁹⁾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신공황후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된 후에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살아 있었다는 것이다.

‘조선야마’의 경우 창고에서 보관된 채 방치된 것이 우연히 발견되고, 그 역사적인 의의를 찾았던 경우이다. 이것은 조선통신사 행렬을 보고 감명을 받은 사람들이 특별히 주문하여 만든 의상인데, 마을축제 때마다 사용했다가 明治政府가 1874년에 금지함에 따라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것이다. 무의미한 존재로 전락한 의상이 조선통신사의 재발견 작업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다.¹⁰⁾

한편 이원식은 조선통신사의 문화교류에 주목하여 상호인식 및 문화적 영향을 구명하며, 筆談內容을 科擧制度, 諺文, 冠婚喪祭, 醫事問答, 退溪朱子學, 등 16항목으로 분류했다. 그는 일본국내에 散在된 통신사 자료와 통신사행 遺墨을 수집하는 등 양국의 문화교류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큰 업적을 남겼다.¹¹⁾

2007년은 조선통신사가 1607년에 回答兼刷還使라는 이름으로 일본을 방문한지 400년이 되는 해라서 朝鮮通信使行列 재현행사가 한국과 일본 각지에서 열렸다. 한국에서는 조선통신사 한일문화교류축제의 한 행사로 부산 광복로에서 조선통신사 행렬이 재현되었다.¹²⁾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조선통신사라는 명칭과 함께 선린우호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이외에도 조선통신사가 남긴 기록들을 수집하여 정리하는 작업이 각 지역마다 진행되고 있고 전문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도 많다.¹³⁾ 여기서 언급한 것은 극히 일부이고 초기 연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기한다. 그러면서도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초기 연구를 뛰어넘은 연구 성과는 나타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선린우호론은 일본국내 역사개설서 등에도 반영되고 있다. 홍성덕은 개설서를 분석하면서 그 특징을 ‘조선통신사를 조선후기 두 나라의 상징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조선전기 통신사와 연결성을 부각하지 않았다’고 했다.¹⁴⁾ 역시 선린우호론이 투영되고 있다는 평가라고 생각한다.

9) 연민수, 『神功皇后의 전설과 日本人의 對韓觀』, 『韓日關係史研究』 24, 2006.4 참조.

10) 申基秀, 『祭りに残った通信使行列』, 『朝鮮通信使と日本人』, 學生社, 1992, 156쪽.

11) 이원식, 『朝鮮通信使』, 민음사, 1991, 64쪽~95쪽.

12) 이 행사에 대한 자세한 것은 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 사이트 <http://www.tongsinsa.com/> 참조.

13)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연구성과는 仲尾玄, 『朝鮮通信使および中近世日朝關係史文獻目録』, 『朝鮮通信使をよみなおす』 明石書店, 2006, 332쪽~356쪽 참조. 또한 2000년까지 연구성과는 朝鮮通信使關係資料目録(테라베이스판) <http://www.zinbun.kyoto-u.ac.jp/~mizna/tsushinshi/index.html> 확인할 수 있다.

14) 홍성덕, 「근세 한일관계사술의 내용분석」, 한국사연구회, 한일관계사학회 편, 『일본역사서의 왜곡과 진실』, 2008, 景仁文化社, 242쪽.

또한 2005년에는 의미 있는 책이 나왔다. 한국과 일본 교사들이 한일공통역사교재인 『조선통신사』를 출간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역사에 대한 공통인식을 갖는다는 큰 목표로 시작한 연구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조선통신사가 선린우호의 상징이라는 시각이 투영된 것이다.¹⁵⁾

3. 교린 속의 통신사

1) 선린우호론 검토

3장은 서론에서 제기한 연구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통신사가 선린우호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과연 파견되었는지부터 보자. 먼저 선린과 교린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확인하면, 선린은 이웃나라와 사이좋게 지낸다, 교린은 이웃나라와 사귀어라고 나온다. 뜻은 비슷하지만 조선시대의 구체적인 용례까지 검토해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교린의 용례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연구가 있다. 민덕기는 조선전기의 교린용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교린이란 禮를 가지고 信義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은 ‘交隣之禮’ ‘交隣之道’라는 관용구로서 쓰여진 것으로 알 수 있다. 결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거나 상대국에 위협을 준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교린은 상대국의 군장에게 사절을 파견하여 聘問하거나, 또는 그러한 사절이 파견되었을 경우에 답례의 사절을 파견하여 報聘하는 것이다. 특히 상대국의 군장이 사망하거나 즉위한 것에 대한 弔祭 慶賀가 사절파견의 기본적 명분이다. 셋째, 이러한 교린은 이미 조선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다.¹⁶⁾

교린과 통신사의 관계는 민덕기의 지적처럼 바로 여기에 있다. 변함이 없는 교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새 정권에 대한 聘問이 필수적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예를 들어 한국대통령이 취임하면 많은 국가 원수들이 축하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민덕기의 연구가 조선전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과연 조선후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의문라는 점이다.

한편 손승철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인 책봉과 조공에 주목하여 책봉에 여부를 중심으로 시기구분을 하면서 조선전기를 ‘중화적 교린체제의 확립’ 조선후기를 ‘탈중화적 교린체제’라고 규정했다.¹⁷⁾ 여기에는 荒野泰典의 연구의 영향이 컸다. 그는 근세 일본외교를 周邊諸國, 諸民族에 服屬儀禮를 요구한, 즉 중국을 통하지 않은 일본을 頂點으로 한 외교체제로 봤다. 다시 말해 ‘武力의 威嚴’을 中心으로 한 독자적인 외교체제였고, 국내적으로는 통신사를 막부에 武威에 복속한 ‘入貢’이라고 위치시켰다고 보는 ‘日本型華夷秩序’라고 했다.¹⁸⁾

15) 한일공통역사교재 제작팀 지음, 『조선통신사』, 2005, 166쪽~169쪽.

16) 민덕기, 『前近代 동아시아 세계의 韓日관계』, 景仁文化社, 2007, 24참조.

17) 손승철, 『조선 후기 탈중화적 교린체제』, 『조선시대 한일관계사연구』, 지성의 샘, 1994, 2장~4장 참조.

한국학회의 교린에 대한 연구는 두 사람 이후 거의 연구가 단절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교린과 통신사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선린과 교린에 대해서는 연구가 없는 상태이다.

다음은 선린을 보자.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해보니 선린은 19건의 원문 기사가 있었고, 교린은 485건의 원문기사가 있었다. 통신사와 함께 검색을 하면 선린은 1건의 기사만 있고, 교린은 26건의 기사가 있었다.¹⁹⁾ 비율만 본다면 선린은 거의 통신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교린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 선린 기사는 조선전기 7건(선조대 4건 포함), 조선후기 2건, 고순조대가 10건이었다. 교린의 경우 태조대부터 전시기에 걸쳐 나와 있고, 가장 많았던 것이 중종대의 81건이었다. 선린의 용례를 보면, 세조, 성종대는 일본 사신이 갖고 온 日本書契를 기록한 것이고, 선조대의 경우 대마도에 대한 무역 재개 여부를 논의할 자리에서 나오거나, 일본 사신이 갖고 온 일본서적 내용이였다. 유일하게 통신사와 선린이 함께 나오는 기사는 선조대인데, 일본에 보내는 사신명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것은 조선후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승정원일기』에는 선린(善隣之道)과 교린(交隣之道)을 거의 동일하게 사용한 기사도 일부 있었다.²⁰⁾ 고순조대 때는 통신사를 파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선린용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조선시대 선린은 조선보다 일본이 선호했고, 에도막부보다 '선린이 국보'라고 했던 조선전기 무로마치막부(室町幕府)가 선호했다고 생각한다.²¹⁾

현재 사전상의 뜻은 선린과 교린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조선시대에는 지금까지 논한 것처럼 차이가 있었다. 그렇다면 선린과 교린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필자는 선린 보다 교린이 정책적인 측면이 강하고, 선린은 단순한 구호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통신사와 관련성을 보면, 조선은 교린이라는 큰 틀 속에서 통신사를 파견했는데, 지금처럼 교린 대신 선린만을 계속 사용한다면 점점 조선의 외교정책이 축소 내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것은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일부 기사만을 검토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자료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겠지만, 조선후기 통신사의교를 선린우호론만으로 보는 것은 역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선린우호론자들이 조선통신사를 現在 한일관계와 쉽

18) 荒野泰典, 「大君外交體制の確立」, 『鎖國』有斐閣, 1981을 참조.

그러나 17세기~19세기까지의 대외정책을 '日本型華夷秩序'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나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山本博文은 宗家文書중 東京大學資料編集所서장 江戸藩邸기록을 사용하고 18세기 이후 막부의 대조선 외교는 일조관계의 유지라는 성격이 강해지므로 일본적인 '華夷秩序'라는 개념은 회박했다고 지적했다. 그 이외에도 대마도가 조선과의 무역이 어려워지자 막부에게 원조를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조선과의 외교관계의 중요성을 막부에게 인식시키려 했다는 종래와 전혀 다른 해석을 했다. (山本博文, 『對馬藩江戸家老』, 講談社1995, 35쪽~36쪽, 232쪽)

19)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을 이용했다. 검색어는 善隣, 善隣友好, 交隣, 通信使이고 원문을 기준으로 했다.

20) 예를 들어 『승정원일기』 숙종37년 9월 21일, 25일.

21) 日本國源義政奉書朝鮮國王殿下 祖宗以來 率以善隣爲國寶焉 故今差盧圓通事 齋不腆之士宜 以修前好 幸采納 (『세조실록』 14권 4년 10월 12일)

게 연결시키는 것 역시 연구자들의 지나친 비약이 아닌가 싶다. 전근대사회를 산 사람들이 지금 우리처럼 선린우호를 갈망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어쩌면 조선후기를 선린우호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 아닌가는 생각까지 든다.

2) 조선의 기미책

조선후기 조일관계는 일본에 대한 교린과 대마도에 대한 기미책으로 정리할 수 있다. 조선은 일본과 교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장군이 바뀔 때마다 통신사를 파견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대마도를 회유하기 위한 정책이 기미책이었다. 특히 조선후기에는 모든 외교교섭이 대마도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마도의 외교적인 위상은 상당히 높았다. 기미책에 대한 연구는 90년대에 들어서 민덕기와 손승철이 시작했다. 손승철의 연구에 의하면 羈縻策은 太祖가 왜구 진압과 捕虜送還에 적극적인 세력들에게 통교상의 특혜를 주고, 조선의 관직을 하사하는 수직제도를 활용한 것이 처음이다. 기미책은 '羈縻不絕而已'란 말속에 함축되어 있다. 즉 기미란 국가간의 관계를 소나 말을 고삐로 견제하듯이 하는 것이며, 不絕이란 국가간의 관계를 사자의 왕래를 통해 끊지 않으며, 而已란 그 이상의 적극적인 조치(정복, 관리과건 등)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국의 정책을 小中華를 자칭했던 조선도 계승한 셈이다.²²⁾ 기미책은 결과적으로 대마도가 경제적으로 조선에 의존하는 체제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마도의 외교적 역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통신사 파견절차를 통해 보자. 먼저 일본에서 새로운 幕府將軍이 장군직을 계승하게 되면, 對馬島主는 막부의 명을 받아, '關白承襲告慶差倭'를 조선에 파견하여 그 사실을 알린다. 그리고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는 '通信使請來差倭'를 파견한다. 이에 따라 조선은 禮曹에서 통신사파견을 결정한 후, 이 사실을 倭館에 알린다. 통신사가 서울을 출발하여 부산에 도착하면 '信使迎聘差倭'의 인도를 받아 대마도에 도착 한 후, 對馬島主의 안내를 받아 江戸까지 왕복한다. 통신사가 임무를 마치고 對馬島로 돌아오면 그곳에서 부산까지는 다시 '信使送裁判差倭'가 이들을 호행하여 무사히 사행을 마치도록 안내했다.²³⁾

이와 같이 교린에는 조선시대 전시기에 걸친 대마도에 대한 기미책이 포함된다. 그리고 기미책은 조선에게 큰 경제적인 부담이었다. 그런데 일본의 연구 성과는 기본적으로 메이지政府의 침략성과 에도막부의 평화정책이라는 구도에서 이루어진다. 물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다만 선린우호론의 주체가 에도막부이기 때문에 조선전기부터 이어진 양국 교린관계가 상당히 축소된다. 그 뿐만 아니다 대마도에 대한 기미책은 명치유신 이후에도 계속되는데,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은 선린우호론에서 찾아 볼 수 없다

22) 손승철, 전게서, 35~36쪽

23) 손승철, 「조선시대 通信使研究의 회고와 전망」, 『韓日關係史研究』 16집, 2002, 45쪽.

결국 보내달라고 했던 나라 중심의 朝鮮通信使像만이 있고, 통신사를 보낸 조선의 입장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아직 해명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다. 이 분야는 오히려 한국학회의 연구 성과가 앞선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측 연구에 반영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

3) 시기구분 문제

조선통신사와 통신사에 대한 시기구분은 지금까지 한일양국의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조선후기를 대상으로 한 조선통신사 연구자들의 시기구분과 조선시대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신사 연구자의 시기구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자 한다. 조선통신사의 시기구분은 三宅英利와 仲尾宏가 시도한 바 있다. 三宅은 조선후기 조선통신사를 ①幕藩體制確立期(3차의 회담겸쇄환사) ②幕藩體制安定期(전기)(1636년, 1643년, 1655년, 1682년) ③新井白石의 制度改變期(1711년) ④幕藩體制安定期(후기)(1719년, 1748년, 1763년) ⑤幕藩體制衰退期(1811년)의 5기로 규정했다.²⁴⁾ 仲尾宏는 3기의 白石의 통신사접대 개혁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막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변화가 없었다고 하여 2기에 포함시키고, 쇠퇴기는 대마도와 교섭이 막부소멸까지 있었기 때문에 1867년까지로 하며 4기로 규정했다.²⁵⁾ 그러나 하우봉은 三宅의 시기구분은 일본 국내의 정치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조선의 관점과는 거리가 있다고 하며 ①交隣體制回復期(1599~1635) ②交隣體制的 확립 및 안정기(1636~1811) ③衰退期(1812~1867)의 3기로 나누고 있다.²⁶⁾

그동안 한일양국에서 이루어진 시기구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통신사를 조선이 파견한 것은 1811년 까지였고, 그 이후에는 일본을 방문한 통신사는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1811년 이후를 단순히 쇠퇴기로 봐도 되는 지 의문이다. 물론 파견여부만 놓고 보면 그러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통신사외교는 지속되고 있었다는 점을 무시해도 되는가.²⁷⁾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837년 이에요시(家慶:1793~1853)가 13대 장군직을 계승했는데, 일본국내에는 화제나 흉작 등 악조건이 겹쳐서 당장 통신사요청을 하기가 어려웠다. 4년후 幕府는 1844년도에 대마도역지 통신을 지시하고 조선과 교섭할 것을 명령했다. 조선은 시기를 1846년으로 미루어 수용했다. 1843년 은퇴한 이에나리가 서거하자, 조선은 玄學魯 등을 보내 위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幕府는 1843년 갑자기 '대마도는 비좁으니 大阪에서 빙례를 하고 싶다'는 幕府의 말을 전해왔다. 大阪聘禮는 양국 사이에 제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연기요청이 거듭되었으나, 大阪에서 1861년에 실시하기를 합의했다. 그런데 통신사 빙례를 받지 못한 채 1853년 장군이 서거하자 大阪聘禮는 그 의미를 잃었다. 조선

은 1855년 김계운을 보내 위문을 했다. 그 이후에도 양국은 통신사교섭을 거듭했고 최종적으로 1876년에 실시하기로 했으나, 1868년에 명치유신이 일어나 통신사파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²⁸⁾ 1811년 이후 통신사는 파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린우호론에서 본다면 선린우호는 끝난 것이다. 그러나 조선은 경하의 통신사를 파견하지 않았으나, 조위를 표하는 사신을 계속 보냈다. 선린우호론은 이와 같은 조일양국의 교린의 모습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²⁹⁾

둘째 에도막부의 소멸과 통신사 파견은 과연 관련이 있는가. 조선통신사는 한국사 입장을 강조한 통신사연구든 통신사외교가 끝난 시기를 1867년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통신사는 에도막부가 보낸 것이 아니라 조선이 보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막부 소멸과 연결시켜 통신사외교가 끝났다고 볼 수 없다. 이것도 선린우호론의 오류에서 나온 것이다. 즉 선린우호론은 연구주체가 에도막부이기 때문에 에도막부의 소멸이 선린우호의 소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통신사외교가 끝난 시기는 1867년이 아니라 1876년이다. 조선이 서계문제로 단절된 교린관계를 복구하고자 구호를 회복한다는 뜻을 담아 修信使를 파견함으로써 통신사외교는 완전히 끝난 것이다. 이것은 申樞과 高宗의 대화에서 잘 들어나고 있다.³⁰⁾

구로다 기요타카(黒田清隆)는 6개월 안에 사신을 보내 회답사례와 풍속을 알아보기 위해 유람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부산에서 기선을 타고 시모노세키(下関)까지 가서 거기서 도쿄(東京)까지는 7, 8일이면 도착하니 노고가 없다고 했습니다. 상이 이르기를, 그러면 이는 通信使인가 하니, 申樞이 아뢰기를, 品秩의 常例에 구애받지 말고 일을 잘 하는 사람을 보내라 합니다. 이제부터 사신은 모두 禮幣를 없애고 일본에 가면 방세를 주고 거처하고 밥을 사서 먹으니, 이것은 通信使와 다릅니다. 미야모토·노무라(野村)가 말하기를, 일본의 兵器·農器는 천하에서 으뜸인데, 귀국에서 살 뜻이 있고 또 장인을 보내어 본떠 만든다면 모두 힘껏 주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용문을 봐도 수신사 파견이야말로 통신사외교가 끝난 시점인데, 선린우호론으로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이 들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³¹⁾

4. 결론

필자는 조선통신사 연구자들의 업적을 결코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연

24) 三宅英利저 손승철 옮김, 『近世韓日關係史研究』, 이론과 실천, 1991, 450쪽

25) 仲尾宏, 『朝鮮通信使 徳川幕府』, 明石書店, 1997, 21쪽.

26) 하우봉, 『王辰倭亂 以後의 日本關係』, 『港都釜山』, 1991, 82쪽~95쪽.

27) 현명철, 『통신사 단절과 서계 문제』,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통신사-왜관과 한일관계』, 景仁文化社, 2005 참조.

28) 『국역 증정교린지』 256쪽, 『국역 증보문헌비고』 교빙고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4, 150쪽~151쪽.
29) 자세한 것은 절고, 「1811년 對馬島易地通信研究 -기미책을 중심으로-」, 조규익·정영문 엮음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 4, 學古房, 2008 참조.

30) 『承政院日記』 고종 13년 2월 6일.

31) 자세한 것은 절고, 「1876년 修信使연구-高宗의 舊好回復論을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 2007.8 참조.

구가 없었다면 통신사는 아직도 조공사라는 평가를 벗어나기 힘들었음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각 지역에 남아 있던 조공사의 기록이나 기억은 그 사실 여부를 떠나 살아남았을 것이다. 본고는 일본에서 통신사가 조공사의 오명을 벗기 위해 필요했던 선린우호론이 그 사명을 다 했다고 보고, 이제는 그 문제점도 과감하게 들어내자는 의도에서 작성한 것이다.

지금까지 통신사에 대해 비교적 냉소적이었던 한국사학회에 최근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은 실로 고무적인 일이다. 먼저 2002년에 공동연구를 시작한 한일공동역사위원회의 보고서가 2005년에 공개되었다. 통신사는 그 중 한 주제로 선정되고 8명의 연구자가 집필했다. 이것은 아마도 한국에서 최초의 통신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라고 생각한다. 2008년에는 그동안 한국에서 발표된 통신사와 관련된 논문을 모아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 13권이 출간되었다. 제목이 조선통신사라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성과가 통신사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통신사연구의 앞으로의 관제를 제시하면서 본고를 마치려고 한다. 첫째 교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선린우호론을 대체 할 수 있는 '교린의 상징인 통신사'라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교린의 정신인信義, 誠信 등의 통신사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성신에 관해서는 성신의교론을 주장한 雨森芳洲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³²⁾ 이 작업은 성신을 조선 입장, 막부입장, 대마도 입장에서 세밀하게 접근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그런 작업을 통해 선린우호론을 대체할 수 있는 '교린의 상징인 통신사'라는 조선 입장을 반영한 새로운 통신사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미책에 대한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 잘 알려지는 대로 한국과 일본에 있는 대마도증가문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조선시대 대마도의 외교적인 위상을 구명해야 할 것이다. 한국인 연구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草書體의 대마도증가문서를 젊은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최근의 연구 성과는 고무적인 일이다.³³⁾ 특히 통신사의 미해결 과제를 구명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한일관계사 연구자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새로운 연구성과를 기대한다. 셋째 한국사의 시각에서 통신사의 시기구분을 해야 할 것이다. 필자의 연구는 아직 시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32) 자세한 것은 참고, 「雨森芳洲의 誠信外交論에 관한 一考察」, 조규익·정영문 엮음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 5, 學古房, 2008 및 참고, 「雨森芳洲의 研究」, 『日本文化研究』 27집, 2008.7 참조.

33) 허지은, 「쓰시마 조선어통사의 성립과정과 역할」, 『韓日關係史研究』 29, 2008.4 김광일, 「조선후기 왜관의 정보수집에 관한 연구」, 『韓日關係史研究』 29, 2008.4 등이 있다.

참고문헌

- 箕輪吉次, 「朝鮮通信使という名稱について—天和2年(1682)の資料を中心に—」, 조규익·정영문 엮음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 8, 學古房, 2008.
- 조광, 「통신사에 관한 한국학계의 연구 성과와 쟁점사항」, 조규익·정영문 엮음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 8, 學古房, 2008.
- 홍성덕, 「근세 한일관계서술의 내용분석」, 한국사연구회, 한일관계사학회 편, 『일본역사서의 왜곡과 진실』, 2008, 景仁文化社.
- 岩方久彦, 「雨森芳洲의 誠信外交論에 관한 一考察」, 조규익·정영문 엮음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 5, 學古房, 2008.
- , 「1811년 對馬島易地通信研究 —기미책을 중심으로—」, 조규익·정영문 엮음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 4, 學古房, 2008.
- , 「雨森芳洲의 研究」, 『日本文化研究』 27집, 2008.7.
- , 「1876년 修信使연구—高宗의 舊好回復論을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 2007.8.
- 김광일, 「조선후기 왜관의 정보수집에 관한 연구」, 『韓日關係史研究』 29, 2008.4.
- 허지은, 「쓰시마 조선어통사의 성립과정과 역할」, 『韓日關係史研究』 29, 2008.4.
- 민덕기, 『前近代 동아시아 세계의 韓日관계』, 景仁文化社, 2007.
- 연민수, 「神功皇后의 전설과 日本人의 對韓觀」, 『韓日關係史研究』 24, 2006.4.
- 장순순, 「朝鮮時代 通信使研究의 現況과 課題」,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편 『통신사·왜관과 한일관계』, 景仁文化社, 2005.
- 현명철, 「통신사 단절과 세계 문제」,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편 『통신사·왜관과 한일관계』, 景仁文化社, 2005.
- 한일공동통역사교재 제작팀 지음, 『조선통신사』, 2005.
- 손승철, 「조선시대 通信使研究의 회고와 전망」, 『韓日關係史研究』 16집, 2002.5.
- , 『朝鮮時代韓日關係史研究』, 지성의 샘, 1994.
- 하우붕, 「壬辰倭亂 以後의 日本關係」, 『港都釜山』, 1991.
- 三宅英利 지 손승철 옮김, 『近世韓日關係史研究』, 이론과 실천, 1991.
- 이원식, 『朝鮮通信使』, 민음사, 1991.
- 李進熙, 「朝鮮朝와 德川幕府」, 『韓國과 日本文化』, 乙酉文化社, 1982.
- 仲尾宏, 「朝鮮通信使および中·近世日朝關係使文獻目錄」, 『朝鮮通信使をよみなおす』 明石書店, 2006.
- 仲尾宏 지, 유중현 옮김, 『조선통신사 이야기』, 한울, 2007.
- 小島康敬, 「江戸時代における朝鮮像の推移—知識人の場合—」, 『鏡の中の日本と韓国』, ベリカン社, 2000.
- 金光哲, 『中近世における朝鮮觀の創出』, 校倉書房, 1998.
- 山本博文, 『對馬藩江戸家老』, 講談社, 1995.

申基秀, 「祭りに残った通信使行列」, 『朝鮮通信使と日本人』, 學生社, 1992.

荒野泰典, 「大君外交體制の確立」, 『鎖國』有斐閣, 1981.

『세조실록』 『승정원일기』 『국역 증정교린지』 『국역 증보문헌비고』